

# 3세대 가족을 위한 주택개발의 의의와 과제

평소 국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규효 건설부장관님, 공공주택분야에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옥 사장님, 본 토론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朴在侃 노인문제 연구소장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방청자 여러분! 본인은 본 토론회를 준비한 한 사람으로서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삼세대주택에 대한 평소의 소감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1

지난 20여년간 이룩되어 온 경제발전은 커다란 사회변동을 야기하면서, 주택부문에 있어서의 상황도 매우 큰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여로의 인구집중은 도시가구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주택의 양적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주택부족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생산인력구조를 요구함에 따라 진행된 핵가족화 현상은 가족규모의 축소와 함께 주택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이를 더욱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은 그 당면목표를 주택수의 절대부족 해소에 두고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주택형식면에 있어서는 대량공급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되었으며, 이는 주로 핵가족의 거주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실제로 1985년 중에 공공부문이 건설한 주택 132,070호중 93%에 달하는 122,426호가 공동주택이었으며, 그 대부분은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생활방식을 대상으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동주택을 보편적인 주거형식으로 정착시키면서 도시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늘어가는 핵가족의 주택요구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수용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주택사정이 어려운 형편임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이 양적공급 확대에 그 기초를 두어 온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 2

그러나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생활 향상을 통한 국민복지의 실현에 있다 할 때 한정된 국가자원이 이 목표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그 효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효율성 문제와 함께 전체국민의 주택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평형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까지 양적 공급확대 일변도로 수행되어온 주택정책은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않다 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의 의식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제까지 정책권 밖에서 소외된 채 방치되어 왔던 다양한 주택요구들이 점차 표면화 되고 있어 이제 우리의 공공주택건설은 물량확대와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주택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원적인 정책수행이 필요한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핵가족위주 일변도의 주택공급은 핵가족과 함께 또 하나의 주요한 가족형태인 삼세대가족의 주택요구에 적절히 대응치 못함으로써 오히려 핵가족화를 조장시켜, 우리의 전통가족제도의 해체를 촉진하고 주택수요를 증가시키는 등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 3

한편,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8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이화영 / 대한주택공사부사장

인구의 4.2%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보건의 향상과 함께 이러한 노년인구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UN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197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선진국의 6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이 54%로 예상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증가율이 1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 선진국의 경우 노령인구가 5%에서 15%에 도달하는데에 100년 이상이 소요되었음에 비해 한국에서는 불과 38년만에 같은 양의 증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20~30년 내에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선진외국과 같은 고령화단계에 들어서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가족화 추세속에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망은 노인문제가 비단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화 될 것을 예측케 하고 있어 노부모 동거가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회문제와 함께 노인문제 역시 국가가 주체가 되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이지만 아직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노인에 대한 많은 실태조사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희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사회에 비하여 우리 사회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치관의 보전을 위해서도 우리의 전통가족제도의 육성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노인주택단지 건설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주택 부문에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노인문제에 대한 가족의 기능을 중요시 하여 이를 조장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의무를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동거 가족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책정해 주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러한 나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그 초기단계에 있다 할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전통적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4

이렇게 볼 때 삼세대가족을 위한 주택의 개발은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와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주택요구에 부응하는 다원적인 주택정책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노인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의의, 그리고 건전한 사회, 가치관의 진작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의 의의와 효과를 갖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세대가족을 위한 주택의 개발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기존의 주택정책의 주요목표가 주택의 총량확보에 있음을 감안할 때 삼세대가족을 위한 주택의 공급이 주택정책상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정책효과면으로 본 배분상의 문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세대가족도 소득정도가 상이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계층이 분명히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커다란 의식차이를 갖는 세대간의 동거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핵가족을 대상으로 했던 종래의 주택과는 다른 주공간상의 배려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삼세대가족도

그 가족구성과 생활방식이 다양하므로 주거형식도 다양하게 구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방식 이외에 이웃한 주택에서 각자의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는 방식도 있을 것이며, 외국의 한 학자가 말하듯이 “따뜻한 음식이 식지 않는 거리내에서 부모를 모시는” 주거형식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세대주택을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설비상의 특별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세대주택의 공급방식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며, 앞으로 삼세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아가다 할 때 공공 부문이 담당해야 할 부분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부분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한 논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각 분야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과 시각의 비교를 통해서 그 해결의 방향을 모색코자 마련된 것입니다.

회의의 진행방법상 일반사회 분야와 주택정책분야, 그리고 설계분야로 대별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 분의 주제발표가 있는 후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자 여러분, 그리고 주택정책 수립자와 공급주체가 참여하는 이 토론회를 거쳐 본인이 열거한 논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그 해결방향이 정립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토론회를 위하여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